

지역 소식통

김제지평선대학 신입생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구축과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농촌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한다.

김제시 농기센터는 오는 2월 16일까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학년도 김제지평선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올해 지평선대학은 기능성작물 활용과정과 기후변화 대응 과정 2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신입생은 과정별 40명씩 총 80명을 모집한다.

이번 지평선대학 학사 과정은 급변하는 농업 소비시장에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품목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교육은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100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론교육과 실습, 현장 견학 등으로 운영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24년도 제1회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방 공공요금 동결 및 감면으로 물가안정 대책에 나선다.

시는 25일 시청에서 하수도 요금 감면 및 분뇨·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 수수료 인상 관련 안전성과 물가안정에 대한 관리 방안의 논의하기 위해 물가대책위원들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행 하수도 사용요금을 20% 감면해 지방 공공요금 동결에 기여하기 위한 안전을 심의했다.

또,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위탁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라도관 최근 조례 개정 수수료 인상 단가를 반영한 청소요금 수수료 인상 안전을 심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자치도 출범 기념 도민보고회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찾아가는 도민보고회'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민보고회는 김제시민과 불안군민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한 공감대 형성과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도의원, 시·군 의

원, 기관·사회단체장, 시·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는 정 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특별법 전부개정안 경과보고, 김 지사의 도민보고, 김제·부안 특례 발전 전략 설명, 결의문 낭독,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는 인구 불균형 가속화 및 지방소멸 문제, 열악한 지방재정 등의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례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미래 첨단산업, △농생명 산업, △문화 관광 분야 등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

한 발전 전략을 설명하고 전북특자치도와 함께 성공하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더 새롭고 더 특별해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김제시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새로운 김제 성공시대 개막의 신호탄이 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대도시가 없어 국가정책에서 절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전북이 이번 전북특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더 새롭고 더 특별한 전북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결성

군의회·우석대·원광보건대·하이텍고·한별고·산단진흥회·현대차 전주공장 맞손

완주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나섰다.

지역협의체는 완주군수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원광보건대학교(총장 백준홍), 전북하이텍고(교장 한천수), 한별고(교장 조성규), 완주산단진흥회(회장 김용현),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공장장 임만규)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25일 완주군은 군청사에서 이들 기관과 협약식을 갖고, 교육발전특구 공모 선정을 다짐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특례 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최대 100억 원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협약식과 함께 이들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공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유아부터 초·중·고 교육, 취업까지 연계·지원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공동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완주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나섰다.

하기로 했다. 그동안 완주군은 학부모·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 회의를 수차례 열어 교육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역 맞춤형 돌봄 구축, 특화형 보육과정, 지역 고교 경쟁력강화, 지역인재 대학 전형 확대, 지역 산업체 채용 연계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공동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일하며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며 "지역협의체와 힘을 모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난희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완주는 인구가 늘고 있다. 정주 여건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중 교육을 빼놓을 수가 없다"며 "완주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 전국에서 찾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6개월 노력 끝에 법원 전용 무인기 설치

완주군이 6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군청사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에는 등기소가 없어 법인 등기부 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타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 8월부터 지역 내 등록법인과 종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법원행정처

와 6개월여에 걸친 업무협의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라는 결실을 맺었다. 군청 1층 열린민원관에 설치된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종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25일 익산시에서 열린 전라북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촉구했다.

영농형 태양광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촉구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서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25일 익산시에서 열린 전라북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촉구했다.

서남용 의장은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태양광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농지법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의장은 이를 통해 농업인에

게 추가적인 소득의 기회가 열려,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궁극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표방하는 농생명산업 육성과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 등 '글로벌생명경계도시' 개발의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용 의장은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영농형 태양광을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주기를 강력히 건의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올 시비 직불금 141억원 지급

이달 안에 1만3377농업인 대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올해 시비직불금(기본형 공익직불금 및 소농 직불금) 141억을 지급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김제시는 이달 안으로 1만3,377농업인(법인포함)에게 시비직불금(기본형 공익직불금 및 소농 직불금) 141억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비 기본형 직불금은 기존의 쌀 소득 보전 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변경됨에 따라 대상 농지 중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지급한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 농업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내 경작농지(논)에 최대 5ha까지 ha당 82만5,000원을 지원하며 1만1,777농가에 130억이 지원될 예정이다. 소농 직불금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로 농업수도 위상 확립 및 농업도시 육성을 위해 지난 2023년 신설됐으며 올해도 김제 거주 소규모 농가의 경영안정 및 대농과 소농간의 비대칭적인 지급구조의 완화를 위해 3,160명에 농가당 36만원씩 11억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도내 최대규모로 올해 전년 대비 912농가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지난 24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에 개별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비 직불금 지원으로 농가재 가격상승과 쌀값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의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도시 김제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